

# 혼란 가중시키는 환자 가족 정보 무분별 유출 수사 착수

## 광주 첫 신종 코로나 확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공문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개인정보가 급속도로 퍼날라지면서 자칫 2차 피해 및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진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에 대한 현황과 조치 내역, 향후계획 등을 담은 공문서 사진이 SNS로 유포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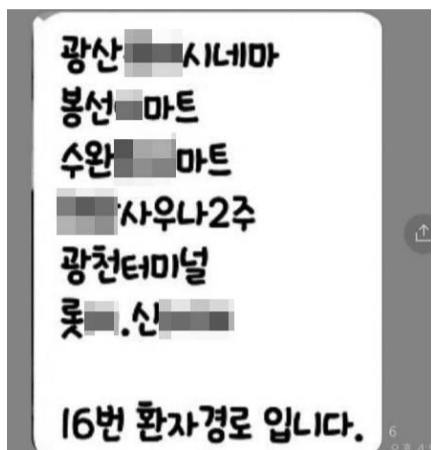
해당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라는 공문서 형식의 문건으로 16번째 환자의 주거지를 비롯, 가족관계, 최근 이동 내역, 임상 증상, 향후 계획, 진료병원 현황 등이 적시됐다.

문서는 확진자의 7살 난 어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실명으로 기재된 상황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이날 해당 문서가 광산보건소에서 작성된 공문서라고 확인했다. 관할 보건소가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으로 광주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문건은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서 유포되면서 문건에 적시된 병원이 온라인 실

## 광산보건소서 작성 확인

주거지·조치 내역 등 담겨 자녀 어린이집 이름도 적혀 2차 피해·불안감 확산 우려 경찰, 유출 경로 조사 나서



인터넷 상에 떠도는 확진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이동경로.

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오르기도 했다.

또 인터넷과 SNS상에는 공문서에 적시된 확진자가 '보름이상 광산구 대형마트·시네마·터미널 등을 돌며 1300명 이상 만났고 함께 여행한 동료들이 서구와 남구에 거주해 이들 지역 초등학교는 등교 금지에 요'라는 미확인 메시지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심각성을 감안, 이날 낮 12시 50

분께 신고를 접수받은 뒤 문건을 작성한 광산구 보건소와 광주시를 찾아 진위 여부와 전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다.

광산구 보건소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경우 보건소 담당팀장, 과장, 소장을 거쳐 광주시로 보낸 문서인데 중간에 손글씨를 쓰지 않았다"면서 "문서에 손글씨를 적은 뒤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공무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조치 내역을 적시하면서 '누군가' '전남대병원'이라고 직접 써 넣었다.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문서에 손글씨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광산구 보건소 주장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의 신상을 담은 공문서로 보이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문서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지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하철 방역 꼼꼼히 4일 오전 광주도시철도 용산차량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신종 코로나에 음주단속 중단했다더니... 광주·전남경찰 잇단 음주사고 골머리

광주·전남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감안해 음주단속을 중단했지만, 음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음주단속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단속을 실시할 수도 없고 음주운전을 지켜만 볼 수도 없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도로를 전면차단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일시 중단하고,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한 뒤 1회용 필터를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게끔 대체한다"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침이 내려진 지 나흘만에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계 광주시 광산구 중앙동 한 이면도로에서 A(36)씨가 몰던 QM6 차량이 주차돼있던 E쿠스 차량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차량은 넘어지며 반대편 차선에 주차된 차량과 또 한번 부딪혔고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까지 피해를 입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9%로 측정됐다. 서구에도 같은 날 면허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4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의 한 일선 경찰관계사는 "음주단속

중단 사실을 듣고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북구에서는 새벽 2시 15분께 중앙선을 침범한 SM5 차량이 마주 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SM5 운전자 B(21)씨가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3일까지 6일 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광주와 전남 각각 35건, 64건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간 적발된 음주운전 55건, 74건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는 일제검문식 단속이 중단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종 코로나 정보 제공 차별" 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

광주에서 16번째 확진자가 확인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정보제공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수어(手語)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영상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정보제공센터에 수어 사용자 맞춤형 수어동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일회용마스크 재사용 자제

### 신종 코로나 예방 어떻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는 가장 좋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은 손씻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때딱기 쉬운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도 꼼꼼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건 삼가야 한다. 손에 물이 바르면 거품이 일기 때문에 흐린 물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어렵다. 흐린 물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어렵다. 흐린 물에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어렵다.

인터넷 상에서는 바이러스가 환자의 눈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는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때 전염될 수 있다는 정보가 왜곡된 것이다. 또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 급하게 병원 이용할 땐

### 광주·전남 선별진료소로

는 길이를 조정해 얼굴에 밀착하고, 착용 후에는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야 한다.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기침예절 준수 ▲발열·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1339콜센터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급하게 병원을 이용할 경우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광주지역 선별진료소는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서광병원·광주기독병원·첨단종합병원·광주일곡병원·KS병원·동구보건소·서구보건소·남구보건소·북구보건소·광산구보건소 등 12곳이며, 이중 국가 지정 선별진료소(응급격리병상)를 갖춘 곳은 전남대·조선대병원 2곳이다.

전남지역 선별진료소는 사군 보건소(22곳)를 비롯해 목포한국병원·목포기독병원·목포중앙병원·목포시의료원·세안종합병원·전남중앙병원(목포), 여수 여천전남병원, 순천 성가톨릭병원·순천의료원, 나주종합병원, 광양사랑병원, 담양사랑병원, 곡성사랑병원, 구례병원, 고흥종합병원·녹동현대병원(고흥), 보성안산병원, 화순고려병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화순성심병원, 장흥종합병원, 강진의료원, 해남종합병원·해남우리종합병원, 영암병원,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함평성심병원, 영광종합병원·영광기독교병원, 장성병원, 완도대성병원, 진도한국병원, 신안대우병원 등 33곳을 포함해 총 55곳이다. 이중 국가 지정 선별진료소를 갖춘 병원은 한국병원·목포중앙병원·목포기독병원·세안종합병원(목포), 성가톨릭병원·순천의료원·순천병원(순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해남종합병원·해남우리병원 등 10곳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and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and 대지/임야/전답.

● 공판 부당성의 면책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매각방법 2. 매각대상 3. 매각절차 4. 매각방법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6.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7. 주의사항